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 행 인 박 필 수
편집인겸 지 재 운
주간 편 집 장 강 병 준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외 대 학 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김 영 로

제 5 3 0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11월 14일 (화요일)

총학생회장 선거열기 고조

서울 15일 유세·16일선거 용인23일투표

서울선관위, "양후보 노선대립 지양할것"

양캠퍼스 2조씩 출마

서양어대등 서울캠퍼스 4개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주 치뤄진가운데 오는 11월16일(목)실시될 제24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7일(화) 서양어대를 시작으로 치뤄진 선거 결과를 보면 ▲서양어대 기호1번 이정훈(독어3), 박종호(서반아어3) ▲사범대 기호1번 신은숙(한교3) ▲정과대 기호1번 김병철(신방3) ▲상경대 기호1번 문지용군(경영3)이 각각 당선되었으며, 8일(수), 10일(금)의 동양어대, 법대, 동아리연합회장선거는 개표결과, 각후보의 득표수 차가 무효표수보다 적은 관계로 동양어대, 법대선거가 오늘(14일), 동아리연합회선거가 15일(수) 다시 실시된다.

또한 지난 8일(수) 후보등록과 기호추첨이 모두 끝난 총학생회장 선거는 ▲기호1번 김남인(동양·일어3), 오세문(상경·무역3) ▲기호2번 김기석(동양·아랍3), 박상근군(서양·영어3)이 출마한 가운데 이제(13일) 1차유세를 마쳤으며, 정견토론회와 2차유세가 오늘(14일), 15일(수)계속된다.

단과대 학생회장선거를 비롯해 이번주의 총학생회장선거와 관련 총학생회측은 『현재, 학내 선거양상이 학생운동권의 노선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운동 내부의 대립이 확대될 경우 차후 학생회의 학내대중확보가 미숙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상대후보와의 단결투쟁을 전제로하여 선거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캠퍼스의 경우, 오는 23일(목) 있을 총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등록마감결과 ▲기호1번 이영록(동문·아프리카어3), 정보영(서문·이태리어3) ▲기호2번 김기선(서문·불어3), 정동녕(서문·영어2)등 2조가 출마하여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과대학생회장 선거는 23일을 전후로 실시될 예정이다.

「임수경 문학상」 수상작 발표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을 기부하고 자주적교류의 길을 튼 임수경양(서문·불어4)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위한 「제1회 임수경 통일문학상」의 수상작이 시부문 「아니오. 데모 안해요 아버지」, 「축전의 밧에게」(최은희, 전남대·국문3), 소설부문 「원점한 만남」(김하기, 부산대·철학3)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시·소설·수필 등 총2백50편이 응모된 이번 문학상에 대해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 김택룐군(서문·노어4)은 『준비부족으로 편수와 내용상에 부족한 점이 많을까 우려하였다』며 『대학최고의 문학상이라고 평할 수 있는 전남대의 5월문학상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부문 가작에는 「풍일꽃」(경희대 국문과 문예창작단 봄우회)가 소설부문은 「끊어지는 사슬」(서문연 노학연대 창작단)이 수필부문에는 「조선처녀의 길」(김수미 전북대 서어서문학과3)이 각각 수상하였다.

용인 지하 동아리방 누수

학교·건축회사 책임회피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지하누수로인해 「아웃사이더」「한알」등 지하에 방을 두고있는 동아리들이 악기 파손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알」회원 김영택군(동문·아프리카어2)에 따르면 『작년부터 1층의 화장실 물이 세기시작해 벽사이로 금이가고 나무가 썩어들어갔다』며 『방학을 마치고 와보니 습기가차서 악기가 부식되었고 악취가 심하게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학생들은 지난 10월10일(화) 학교와 삼환기업을 상대로 진정서와 보상요구서등을 보내 조속한 복구공사와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삼환기업은 『누수는 학생들의 부주의로인한 배수구 막힘이 원인이기에 1차적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아웃사이더」와 「한알」은 누수등의 피해때문에 무용실과 탁구장을 연습장소로 사용하고있다.

갈라진 기념탑

자주·민주·통일의 의지를 담은 「왕산 설립 10주년 기념탑」이 모습을 드러낸지 1주일도 되지 않아 갈라졌다. (주재영 기자)

임수경양 첫공판 열려

본교생등 60여명 구출투쟁 전개

평양축전참가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지령수수·잠입탈출 등)로 구속된 본교 용인캠퍼스 임수경양(서문·불어4)과 문규현신부의 첫공판이 어제(13일)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임양은 모두진술을 통해 『나의 행위들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조작 기소한 것은 전대협의 평축참가에 대한 정부의 공공연한 논의와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축전참가를 협의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 북한의 지령에 의한 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는 북한의 실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분단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의하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임수경양 1차공판을 저지키 위한 본교 용인캠퍼스 및 서총련소속 학생들의 시위가 잦은날 서울교대뒤쪽 도로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날 10시경 교대앞 도로에서부터 연와농성을 전개한 시위학생들은 11시경 출동한 전경에 의해 전원 연행되었으며 연행자중는 본교생 신건수군(서문·체코어2)외 22명이며 타학교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연행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연행과 관련 용인 캠퍼스 학생들은 「통일의 꽃 임수경대표 구출투쟁보고 대회」를 4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해방광장에서 열기도 하였다.

사 령

임
수습기자
김성열(동양·중국어1)
김연희(인문·언어1)
김영식(서문·유고어1)
김태수(인문·사학1)
신나영(동양·인도어1)
이옥희(인문·언어1)
함명식(서문·영어1)
황선혜(서양·독어1)
〈이상 8명 11월14일자〉

하수도

▲베를린 장벽 무너져
－휴전선은 언제나 철거될지
▲임수경대표 첫공판
－분단조국의 법정에서 핀 통일의 꽃
▲총학생회장 선거과열
－애국외대인은 하나입니다.

제2총련 대동제 개최

「제2캠퍼스…임시법」 쟁취등결의

제2캠퍼스에 대한 차별적 문교정책 반대및 학원자주역량의 강화를 위한 「제2캠퍼스 총학생회연합(이하 제2총련)대동풀이 한마당」이 지난 11월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양일간 본교생포함, 4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상명여대 천안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제2캠퍼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담보」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제2캠퍼스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정취를 결의한 이날 대동풀이 선포식에서 제2총련 임시의장 윤용한군(건국대 충주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들의 투쟁은 고립분산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단체와 전대협과의 굳건한 연대속에 전개될 것』이라며 『제민주단체들과의 연대투쟁으로 문교부의 분교법을 철폐시키고 임시조치법의 입법화로 제2캠퍼스의 차별정책을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캠퍼스별 상황보고에서 본교 부총학생회장 김유산군(서문·독어4)은 입수경 대표 구출투쟁 현황보고를 통해 『정권은 역사와 민족의 통일의지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임수경대표사법처리반대, 자주적 민간교류경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 9월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제2총련건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결성을 준비해온 「제2캠퍼스 총학생회연합」은 준비기간이 1년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의 학원자주화 사업상황과 제2캠퍼스및 본교에 대한 문제인식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결성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제2총련 건준위 위원장 윤군은 『각 캠퍼스의 고립분산적인 학원자주화 사업을 서로 연대하여 해결하겠다는 목적하에 집행부의 확실한 체제정립 후 구체적 활동방안을 마련, 내년중 제2총련을 꼭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협 「정견토론회」 개최

총학후보들과 서울 오늘·용인21일

「언론협의회(이하언협)」주최, 서울캠퍼스 총·부학생회장 후보 「정견토론회」가 오늘(14일)오후 1시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총·부학생회장 후보와 언론협의회에 소속된 각언론사 대표 1인(4명)및 사회자 등 총9인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각후보자들의 공약을 근거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생들에게 총학생회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번 정견토론회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서 공동질문, 후보자간의 질문, 일반학생들의 서면질문에 대해 각후보자들이 제한된 시간내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1시간30여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언협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의 정견토론회를 오는 11월21일(화) 해방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터진 「엄청난 일」

반의가

▲검찰은 「하수도물을 정제해서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그 유해성을 국내에서는 판가름할 기관이 없다고 했다. 그리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국립보건원등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사부는 「그 완제품에 이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며칠후엔 41개 식품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으며 모호한 식품원료기준을 수정하겠다고 했고, 검찰과 함께 유해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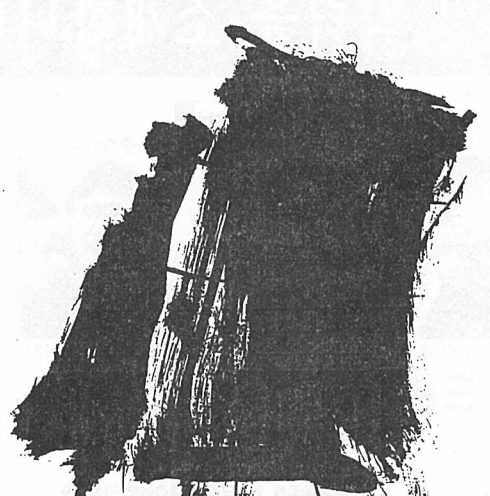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에 밀리자 사과문을 내기도 하고 엉거주춤하게 사태를 판망하고 있다. 우리가 즐겨찾는 「음식」에 대한 일련의 사태들은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번복」과 「회유」「기만」그리고 「뻔뻔스러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어왔고 오늘에도 또 그렇다.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땀방울 젖편에서는 언제나, 언제 터드러질지 모르는 무언가 「엄청난 일」들이 존재해왔다. 정치권력에 얽힌 경제계 이면에 내포된 무수한 음모와 협잡, 냄새나는 일들이 이제는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뒷얘기와 추측이 되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TV의 어느 코미디에서처럼 수습고, 기기묘묘하고, 기발하게 비춰질 정도로 이제 이런 충격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충격보다는 오히려 덤덤한 현실로 경악보다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앞으로 빌어질 또다른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가온다.

▲「공업을 쇠기를 파동」을 대하며 단지 계별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만 전락해버린 대다수 서민들의 모습을 보며 더이상 덤덤하고 무관심해서는 안됨을 느낀다. 주는대로만 먹고 그들이 하는대로 방관할 수 만은 없다. 우리가 언제나처럼 먹어대던 라면속에는, 거리거리마다에 전열된 상품속에는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식사속에도 「자본의 음모」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라면으로 떠들썩한 지금, 정말로 「정신차려야할」 사람들은 정부도 업주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이다.

(한정일)

삼도 30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90년대의 큰 돛을 올릴 인재를 찾습니다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끝없이 도전하며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젊은 지성 — 바로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전공	인원	응시자격
인문사회계	경영학·경제학·무역학·회계학 응용통계학·법학·행정학·사회학 영어·일어·불어	○○명	가. 1962. 1. 1이후 출생자 나.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기졸업자 및 '90. 2월 졸업예정자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공계	전자공학·기계설계·기계공학·섬유공학 화학공학·화학·전산학	○○명	
미술계	응용미술학·산업디자인학	○명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영어/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 면접(2차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 ····· 2통
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1통
다.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 1통
라.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1통

4.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89. 11. 14(화) ~ 11. 22(수) 오전9시 ~ 오후6시
(단, 토요일은 오전9시 ~ 오후4시)

지역	교부처 및 접수처	전화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d-11 대하빌딩(국회 앞) 3층 삼도물산(주) 종합조정실 인력관리팀	782)0011, 0151 (교 424-426)
부산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163 삼도물산(주) 부산사무소 총무과	84)8701~8
대구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55 삼도기전(주) 총무과	54)6101~3

5. 기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삼도그룹人力管理委員會

삼도물산(주), (주)서우, 대신통상(주), 삼도전자(주), 삼도기전(주), (주)동해터미날, 삼도창업투자(주), 삼도화학(주).

사 설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을 보며
-전민족적 통일의지로 분단의 벽을 허물자

한반도의 남북한과 함께 2차대전이후 냉전구조가 낳은 대표적 분단국중 하나로 꼽히는 동서독의 분단체제가 지난 9일 동독공산당의 「국경전면개방」이란 획기적 조치로 그 간의 대립을 증지하고, 막혔던 베를린장벽을 허무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대전에서 패배이후 독일분단의 상징이 되었던 베를린은 당시 승전국인 미·영·불·소 4개국에게 주권이 넘어가고, 1961년에는 실제로 베를린장벽이 설치되는등 지구상 약 반세기동안 계속된 냉전의 산물로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이제 동독은 자유선거보장, 연립정부개획 등으로 동독공산당이 세로이 지향한 「사회주의 민주화와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움직임들은 과거 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나토」로 드러나던 첨예한 미소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성급하게는 동서독의 통일(혹은 연합)까지 전망할 수 있게끔 한다.

이같은 동서독관계의 변화를 겁하며 또하나의 분단 당사국인 우리로서는 세계적 평화조류가 역사속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에 흥분조차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분단된 한반도남단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민주화탄압의 공안정국만이 계속되며 한민족의 베를린장벽이라 할 휴전선 철조망은 깊어가는 체제간의 반목으로 인해 오히려 높아만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당국은 지난 8일 고향방문단, 예술단교환문제를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인원수교환」등의 수치적 명분만을 고집하는가 하면, 고려대-감일성대의 학생교류승인에도 「학문적 교류차원에서 허용」이라는 규제조항을 굳이 붙이는 모습등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자주적 교류와 주체적 요구들을 교묘히 왜곡하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북한측의 체제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태도는 변할 수 없다」는 식의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폐기된 냉전적 반공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학문적연구·출판조차 허용치 않고, 체제를 초월,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일련의 방북자들을 여전히 반국가단체잠입·탈출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이들이 상호간체제인정과 자주를 전제한 어떠한 통일방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서독의 국경전면개방조치가 단지 세계적 조류나 동독공산당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체제간의 이해와 전민족적 통일의지에서 비롯됨을 볼때, 이제 한반도의 분단도 추상적정책나열과 위장논리가 아닌 민족의 단일한 역량으로만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1 김남언 오세문

1.

23대 총학생회의 제 사업을 들어귀보건대 먼저 형식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층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내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잇달은 간부의 구속·수배가 겔곡으로 작을했지만, 총학생회 제 사업으로부터 학우들이 괴리되는 현상이 심화된 일차 원인은 23대총학생회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약사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전행했던 등록금동결투쟁의 실패, 직원노조와의 불편한 관계, 정치투쟁사업에 있어서의 당위성차원에 머문 감성적 호소방식, 이는 모두가 23대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학생회, 민중투쟁의 선봉으로서의 학생회가 디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맞춰여 개교35주년 기념축제는 소비적, 퇴폐향락적 프로그램이 다분했습니다. 건강한 민중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행사여야 한다는 기획의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2.

민중투쟁전선에 몸을 던진지 오래인 저는 점차 학생회와 학우들이 괴리, 학생운동이 침체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방기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한계보다 학생회 운영방식과 사업내용 결정에 있어 비민주성을 오류로 가지고 있는 23대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학우들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출마했습니다.

또, 우리 이문동 8천여 학우들의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파쇼정권과의 투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합니다. 학생운동의 구성체가 총학생회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변혁의 임무를 추진력있게 풀어가고 보다 강하게 학우들에게 뿌리박는 투쟁체로 학생회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학우들과의 강한 연대, 단결투쟁, 노학연대로 나아가는 학생회는 시대적 요구라 생각합니다.

3.

그간 총학생회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운동권조직으로 인식되어 있는 비극적 현실을 고쳐 학우들이 진정 총학생회가 「나의 조직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 많은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구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강화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반영하여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리하여 학우여러분과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관점에 입각하지 못하고 전행된 등록금투쟁의 결과 발생한 등록금 인상을 무효화하고 90년도 등록금을 다시 88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민주화투쟁에 있어 기존에 전행되어온 당위적·감성적 투쟁을 극복하고 과학적 대안을 가지고 학우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땅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의 조직 전노협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파쇼정권의 민중운동탄압 책동에 맞서 그들의 의도를 분쇄할 힘있는 투쟁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기겔코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공약은 이미 배포해드린 공약집과 신문을 통해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형식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현재의 학생회가 즉각적으로 대중속에 뿌리박는 그런 학생회가 될것이라는 「환상」을 즐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식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이 형식이 올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내용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4.

언론에서 연일 PD파가 이겼다, 비운동권이 진출했다 떠들고 있습니다. 민주변혁 과정중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상투쟁을 주사파, 비주사파의 아귀다툼으로 나눔으로써 운동세력의 분열, 학우대중들과의 결합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우들을 믿고 싶습니다.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회가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고민과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기시기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펼쳐 8천학우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3대는 대중화의 간판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정치투쟁에만 급급했었고, 학우들의 참여보다 소수의 간부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사는 시혜물이 되고 총학생회는 「운동권권력기구」라는 비판과 학우들의 무관심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2.

우리 외대는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85년 19대 총학생회를 건설하여 23대에 이르기까지 「학생자치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벌였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본질적 약점이 크게 뚫여 있습니다.

마치 조금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의 걸음에 짜증난 토끼가 투덜거리며 저혼자 어두운 길을 내달리는 소영웅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수권력기관, 행정·투쟁부서로서의 모습으로 혼자 달출하여 달려가다 운동권만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비대중성」을 뛰어넘고 8천학우들과 손잡고 모두의 학생회를 건설하여 외대사랑 통일조국을 향한 90년대로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학우 여러분을 굳게 믿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학우위에 우뚝선 학생회장이 아닌, 대중과 발걸음을 같이하는 진실한 친구로서의 상(像)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3.

우선은 우리 학우들이 살아가며 무엇을 고민하고 바라며, 불만이 무엇인가를 경히하게 묻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우들과 학생회가 서로 떨어져 거리가 있는것인 만큼, 이를 해결하고 외대에 대한 자부심으로 진할 것입니다.

외대는 현재 비운동권과 운동권의 벽이 커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반면에 학우들 스스로 건설한 단체들이 늘어가면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는 이런 움직임을 지원, 권장하고 사업에 학우들을 적극 참가시켜 외대의 단결과 대중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아래 당선이 된다면,

첫째, 공안정국 분쇄와 임 대표 구출을 위해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며,

둘째, 90년 등록금 책정에 대비해 11월중에 등록금조정위원를 즉각 구성하며,

세째, 대학발전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지하휴게실 공사착수및 감사일정을 확인하고 대학생활협동조합 실무위원회를 결성, 구체적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정책자료집에서 밝힌 90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많은 학우들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서 치밀하고 힘찬 사업을 준비하고 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4.

쉽게 이야기하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애국세력의 확산에 놀란 그 레그와 현 정권의 교묘한 분열·탄압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을 이용해 애국세력을 뱀장이로 몰아 고사시키고 특히 가장 선진적이고 민족적 각성이 빠른 청년학생들 내부에서 분열을 극대화해 자주와 통일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안통치 속에서 전행되는 청년학생들의 순수해야할 선거에서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고 있어 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저희는 자주통일의 기운을 가로막는 어떤 도전도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에 무철한 8천학우들은 정견의 차이를 떠나 공동의 적에대해 통일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는 16일(목)로 다가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보에서는 학우들의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해 「두 총학생회장 후보에게 듣는다」라는 기획을 마련 하였습니다.
> 희망찬 90년대를 열어젖히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후보간의 반목과 질시를 배격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통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각 후보당 4개의 질문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원고매수로 제한하였습니다. 또, 원고중 정서법을 제외하고는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 학우들의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편집자〉

질 문

1. 제23대 총학생회 평가
2. 출마동기
3. 당선된다면 무슨일을 어떻게…
4. 최근 제도 언론등을 통해 조장되는 소위 「NL」과 「PD」대립구도에 대한 생각, 이의 올바른 해소방안

"감상이 아닌 「과학적 대안」으로 진정 학우와 함께 건설하는 총학생회가 되렵니다."

"여러분과 발걸음을 같이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기호2 김기석 박상근

미네르바

「아름다운」사람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모습의 「아름다운」 사람을 탄생시켰다. 그 사람은 가늘고 여린 손에 깨끗하고 값나가는 옷을 입고 자신은 노동하지 않고도 늘 윤택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생활화한다. 고전음악과 귀족들의 모습을 담은 미술을 감상하고, 주말이면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또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밖에 살아가지 못할까? 게으르기 때문이야. 저들도 아름다움을 알까?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분명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일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사회에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굵은 손마디에 기름때가 겉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매일을 칙칙한 작업장에서 지낸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야 하고 혹 변화한 거리를 지날 때면 화려한 도시와 TV속의 광고모델 같은 예쁜 여자들을 보며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속에서 일하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찾기보다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여길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현실이다.

▲결모습의 흡물함만으로는 영혼의 추함을 덮을 수 없다. 자본주의 문화에 쩍들어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만 지탱해 나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은 황금들판에서 땀흘리며 일한 후에 호롯한 미소로 바라볼 수 있는 농부의 마음과 노동의 현장에서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속에서 아름다움은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 겉모습의 화려함을 동경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을 전해주자. 『완전한 아름다움은 노동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유〉

기호1번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김남언(동양·일어3)	오세문(상경·무역3)
▲67년 서울출생 ▲86년 강서고졸업 ▲86년 외대일어과 입학	▲68년 충북충주생 ▲87년 충주고졸업 ▲87년 외대무역학과 입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학생회 건설
○…등록금 7%인상 전면 무효투쟁
○…상설 여론조사기구 설치
○…강고한 노학연대로 민중운동탄압분쇄투쟁
○…「학원탄압종합대책」등 학원탄압책동분쇄투쟁
-의료공제, 취업공대위, 구매공급할인판매-

우리, 반동의 사슬을 동강내고 우리, 개량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기호2번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김기석(동양·아람3)	박상근(서양·영어3)
▲64년 전남화순출생 ▲83년 경동고졸업 ▲85년 외대 아랍어과입학	▲66년 대구출생 ▲85년 심인고 졸업 ▲87년 외대 영어과 입학

○…등록금 결정의 권한을 모든 외대인에게
-등록금 조정위원회 구성
○…평양외대와 모의 UN총회 공동개최
○…생활협동조합 결성으로 외대공동체 건설하자
○…공안통치 분쇄하고 임수경을 구출하자
○…외대 종합학술문화제 개최

고동쳐라! 통일조국의 맥박으로 닻을 올려라! 외대사랑의 몸짓으로 함께가자! 겨레의 자랑 애국외대여!

◇90년대 민족민주운동에 제기되는 몇가지 과제〈1〉

90년대 한반도 자주화의 새영역

"반핵 평화 운동"

이 재 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연구임원〉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9〉

제국주의 종속구조, 반핵 평화운동 필요성 제기
외세지배 차단하는 한반도 자주화 운동의 핵심

1. 머리말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군사기지화(특히 핵기지화)하고 있으며, 이 민족의 생존을 세계지배를 위한 볼모로 잡고 있다. 1958년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철수하므로써 휴전협정의 군비통제체제가 붕괴되고, 이에따라 베치되기 시작한 핵무기는 현재 대전, 동두천, 의정부, 춘천, 군산, 광주, 오산, 포항, 대구등 전국을 1천여기의 핵우산으로 뒤덮을 정도라한다. 그 종류도 전략핵무기에서부터 핵지뢰, 핵배낭, 중성자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전체 파괴력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2천여배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한국전쟁초기에 트루만 대통령이 「핵사용 불사선언」이후 오늘날까지 핵사용 가능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82년 제14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측은 「한반도의 안전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하였으며, 83년이래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핵을 동반한 공격전략인 「공지입체전투(기동성을 배양하여 적의 후방을 핵 중심으로 무기공격함으로써 후속부대의 지원을 차단한다는 전투)」개념을 실제로 실험해 오고있다.

80년대 들어 미국은 동시다발전략의 일환으로 수립한 대한반도핵전략에서 「소련이 중동 산유지역에 개입한 경우 즉각 동맹군사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것(83년 미 국방보고서)」이라고 주장하였다. 85년 9월 미의회인공위성요격무기(ASTA)보고서에 의하면 대구에는 우주에 위치한 인공위성을 탐지, 추적 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이미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는 85년 6월 미국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SDI전략방위계획(=별들의 전쟁) 참여를 희망한 이후 곧바로 취해진 조치였다.

남한에 배치된 이러한 미국의 핵전력은 남한민중을 수호하기 위함보다는, 자국의 세계전략 수행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신임 합참의장 콜린 파월이 언급한 『(미국의)당면한 예산압박과 한국의 자체역량 증강만을 들어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동아일보9. 21)』라는 발언과 금년 제21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한, 그리고 한미 양국정부와 국민이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미국은 자국의 전략수행상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핵전략은 철저하게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핵의 위협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남한민중은 핵의 배치와 사용목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알 권리조차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력의 우위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제국주의 핵억지론을 마치 우리의 평화사상인 듯 착각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음까지 자초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반핵평화운동은 단순히 반전운동이 아니라 주변강대국 특히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의 희생물로 되어 그들의 대리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투쟁, 나아가서는 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자주화운동의 핵심적 투쟁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에는 신뢰와 평등속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한민족이 살수있는 유일한 존재의 길인 것이다.

2. 한반도에서 반핵운동의 역사

이미 우리의 민족민주운동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무기및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통해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반핵평화운동이 단순하나마 최초로 시작된 것은 히로시마 원폭피해자의 지원과 보상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74년 이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피폭자에 대한 치료, 가족돕기, 반핵선전사업등을 전개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은 유신체제, 5공화국 등 폭압체제를 거치면서도 「평화」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피폭자 발생에 대한 구조적 원인규명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인권운동에 머물러 있었으며, 또한 그 주체도 피폭자, 양심적 지식인, 종교인, 의사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당시의 반독재운동이나 통일운동과 합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과학적 반핵운동은 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운동과정에 자주화노력이 병행되면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 80년의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민중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인식의 심화과정에서 86년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계열 학생들에 의해 「반전반핵 양키 고 홈」,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가 제기되면서부터 반핵운동이 하나의 운동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반핵운동은 제국주의 군사침략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주를 달성한다는 당위성과 선도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권과 일부 지식인에 한정된 채 진행되었을 뿐, 대중적 확산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반핵운동이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87년 6월 항쟁과 양대선거를 거친 시기였다. 4·26총선 당시 평민당은 외교, 안보정책 구상에서 『핵무기의 반입·설치·철수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민주당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88년에 접어들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의 고양과 함께 재야 조직화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88년 통일운동은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통일논의를 전국민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아울러 반핵등 군사문제의 해결없는 통일정책이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천명 하였다. 또한 반핵단체로는 88년 3월 「국제 핵전쟁예방 의사연맹」의 한국지부가 결성되었으며, 5월에는 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평화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핵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핵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안(가칭)」마련을 추진하였다. 88년 9월에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공해추방, 반핵운동을 전개 해 오던 단체들이 통합하여 「공해추방운동연합」을 결성하였다.

이처럼 반핵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또하나의 계기는 계속되는 핵발전소건설과 그것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한 데에서도 찾을수 있다. 88년 3월 영광2호기의 11월 고리2호기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10월에는 고리에서 방사선 관리자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또다른 노동자들에게서도 암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에는 무뇌아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위기감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은 최근 급속히 고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그다지 깊지 않으며 대중의 전반적 의식수준은 아직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반핵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조직화, 의식화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진것이다.

3. 자주화 운동으로서 제기되는 반핵운동

미국이 추진하는 전우주적 규모의 대결강화노선과 그들의 하위동맹국으로서 위치를 규정받고 있는 남한의 종속적구조는 우리 민족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제한의 군비경쟁과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남한군사기지화 정책이 남겨놓은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이 많다. 첫째,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한민족 전체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으려는 군사정권의 정책은 대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힘의 우위를 통한 억지정책은 계속된 무기경쟁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물자를 낭비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군수산업의 육성정책은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양산하였으며 군수물자의 수입은 외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88년 한해동안 한국은 정부예산의 33%, GNP의 6%를 군사비로 지출하였으며 33억 달러 상당의 미국무기를 수입하였다. 이밖에도 남한민중은 정규군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88년, 20억 달러 이상)까지도 분담하고 있다. 세째, 인력낭비를 들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대결상태는 20대 젊은이 1백40만 이상이 군대에서 비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네째,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배치는 남한의 군사문화를 정착시켜주는 안보논리와 그 물적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다섯째,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은 민족간의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정착시켰다. 여섯째, 연간 1천 7백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와 침략, 지배의 문화는 민족공동체의 전통을 말살시키고 있다.

본래 평화는 조화와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는 분쟁, 갈등, 대립의 조건과 그 근원이 제거되고 증오심과 공격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현대의 평화는 극도로 증대된 핵파괴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전쟁의 근본원인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제3세계의 평화운동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평화운동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로 인하여 아직 완전한 자립구조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종속상태(=제국주의의 지배구조)가 전쟁의 근본원인인 한반도의 전쟁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반핵평화투쟁은 자주화운동의 중심적 영역이 되야 한다. 미국의 남한지배 핵심은 핵무기의 배치와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4만5천명의 주한미군으로 이루어진 군사력이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력으로 한반도 분단, 지배를 떠받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므로써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대결구조를 거부하고 반전반핵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역사적 조건과 불평등한 모순구조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절대평화론」이다. 이 절대평화론은 전쟁인 이상 어떠한 종류의 전쟁이라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구전체를 파멸시킬 가공할 핵전쟁의 위력으로 인하여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민족해방을 위한 전쟁이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침략에 반대하는 전쟁의 정당성조차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UN동시가입」「교차승인」을 주장하므로써 현재의 민족적, 계급적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이러한 주장도 절대평화론의 탈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학계에서 조차도 「남북한이 서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란 환상적 통일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통일=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도 유보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바로 절대평화론의 오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절대적, 무조건적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불평등의 원인인 미국과 군사독재의 착취와 억압, 군사적위기구조를 철폐하므로써 민족적·계급적 불평등상태를 제거하는 운동이다. 즉, 한반도에서 기존의 지배질서인 정치적, 경제적 예속과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핵전력 우위」나 「전쟁없는 상태의 유지」가 평화 일수는 없다. 우리가 실현해야 할 평화는 민족자주독립의 길이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해방과 그것을 통한 구체적 삶의 구조—전쟁과 핵이 없는 상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고 민중의 참가가 보장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화는 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될 수 없으며 반핵평화운동이 대중적 차원에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미국과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들 수 있다.

남과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는 핵문제, 민족자주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둘째, 핵에 대한 무지이다. 핵에 관한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제국주의의 핵전략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핵 자체가 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째, 한국에서의 반핵운동은 분단과 식민지지배를 민중이 주체가 되어 극복해야 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자유주의자들의 비계급적 반핵운동과 우리의 반핵운동을 동일시 하는 등 편협된 인식이 반핵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네째,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군부정권의 대미종속성, 다섯째, 자신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군확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불평등과 억압구조를 종식하기 위한 민중적 평화사상을 구축해야하며 둘째, 남북상호간의 신뢰구축과 군축 세째, 공격적 군사전략의 배제 네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 중지 다섯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그리고 끝으로 핵에 대한 정보 공개, 표현의 자유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그 선결과제로 주어진다.

결국 한반도의 반핵운동은 핵무기 철수와 미군기지 철거를 통해 민족의 생존권을 회복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미국의 파괴적인 군사복합체의 논리를 거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반미 자주화운동이며, 조국통일운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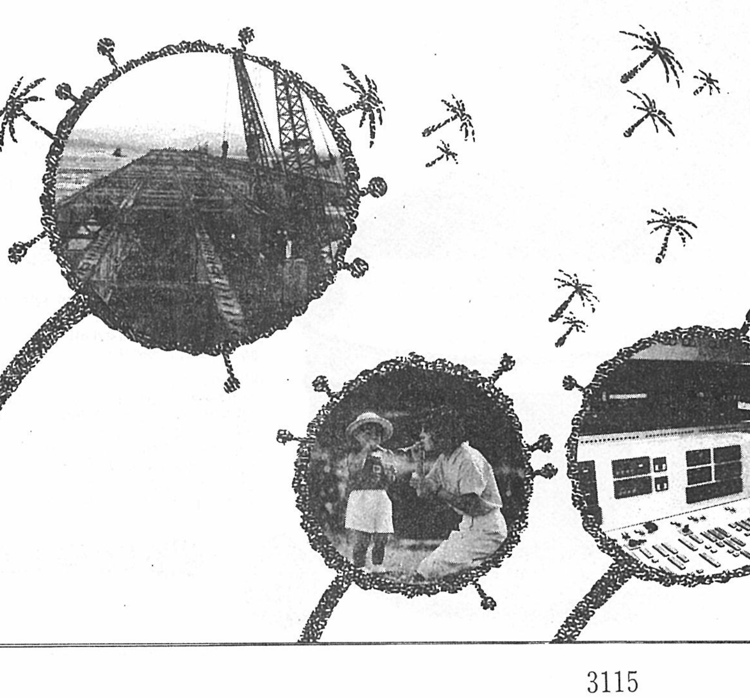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핵무장부대상황

〈그림자료:「반전반핵평화통일론」, 형상사〉

글싣는 차례

1. 80년대 남한사회 통사적고찰
2. 변화하는 주변정세와 남한사회
3. 남한경제의 새로운 전개와 통치전술의 변화
4. (보론)80년대 남한사회 성격의 실체적 규명
5. 민족민주 운동의 성장과 조직화전망
6—1. 반핵평화운동의 필요성과 제기되는 과제
6—2. 80년대 통일운동의 평가와 이후 전망
7. (보론)80년대 북한사회의 전개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함께 풍요를 나눕시다

두산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와
기필코 이루어 내는 집념.
그러나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함께 나누어 갖는 기쁨입니다.
기간산업 분야에 기업의 힘을 집중해 나가고
소비재 분야에 기업의 신뢰를 지켜가면서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그 풍요를 함께 나누는 일
두산그룹은 무역, 건설, 기계, 전자,
출판, 식품, 농축산 분야 등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풍요를 생각합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
斗山그룹

기동취재

포크레인에 헐려진 삶, 이제 어디로 가나…

———구로3동, 남현동 등지에서 자행되는 강제 철거 현장을 찾아

『갈곳이 없응께 여그 있제, 얼마나 답답하면 요로코롬 있거당가』

지난 11월10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산업건설」앞 마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구로3동 철거민 김순길(35)씨의 말이다.

구로3동 주민들이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것이 지난 10월31일 자행된 강제철거후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건설」측은 아무런 답변도 없을뿐더러 퇴근시간이 지나면 셔터마저 내려 주민들이 노상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걸레조각이 다된 이불하나에 의지하고 잠을 자도록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새벽 6시나 됐을 시간에 포크레인 2대하고 1백5십명정도의 철거깡패, 전경차2대의 백골단, 구청직원 등 3백여명이 몰려와 13세대의 사람들을 끌어내고 가재도구도 큰것만 대충대충 꺼낸 뒤에 포크레인으로 무조건 철거해 버립디다. 어찌 사람이라면 그 억수같은 빗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김향순(40)씨는 철거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말한다. 현재 구로역과 대림역 사이 뚝길밑에 위치했던 철거지역에는 50~1백여명의 철거깡패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어 가재도구는 비에 젖은채로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고 깨어진 간장·된장항아리에서 풍기는 냄새만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렇듯 대책없이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는 올해 들어서만도 5월30일 사당2동, 6월16일 서초동 달동네, 6월24일 전농동, 8월31일 남현동등 서울의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철거당시에 철거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상자가 줄을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신정동의 황경호(1세)군이 철거반의 난입에 놀라 죽였으며, 2월에는 돈암동 세입자 대책위원회(이하 세대위)부회장 정상률씨가 재개발조합의 사주를 받은 가옥주의 칼에, 6월에는 사당동의 이혜영(5세)양이 강제철거된 잔해위에서 놀다가 축대가 무너져 담장에 깔려 숨졌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전계획으로 집터를 잃고 쫓겨난 남현동 16세대주민들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위협속에서 비닐하우스 생활을 하고있다.

기형적 경제·농촌인구 도시유입 원인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공간 마련돼야

성남 하대원동의 김덕순(73)할머니가 철거반에 떠밀려 머리를 다치고 한달여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8월5일 숨을 거두었으며, 부상자는 철거가 될때마다 수십명씩 속출하고 있다.

군부대에 집터를 빼앗긴 남현동

한편 대부분의 철거지역이 철거후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반해 관악구 남현동 산 93번지의 경우는 군부대의 이전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입에 풀칠도 할수가 없어 올라온 서울이었제. 영감도 서울와서 잃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웃사람들 인심이 고향같아 견딜수 있었는데…, 세차일을 했는데 철거가 불안해 집도 지켜야 되고, 얻은건 빚밖에 없어 고2짜리 딸내미가 걱정이구먼…』이라는 조효순(56)할머니의 말처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오던 이곳 남현동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85년이었다. 필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1596부대)가 이전하고 고급군인아파트—주민들의 말로는 장성 이상들만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함—와 골프장, 테니스장등의 위락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현재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아래 럭키개발이 공사를 한창 진행중이었으며 처음 1백79세대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16세대는 지난 8월31일 군인, 철거깡패, 전경, 구청직원 2천여명에게 무자비하게 철거돼 공사현장 철조망밖의 조그마한 공터에 비닐하우스 3채를 지어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철거가 시작된 86년도까지만 해도 가옥주와 세입자가 다같이 철거반대를 주장했었으나 구청쪽에서는 보상 해당자와 미해당자로 주민들을 분리하여 해당자(가옥주)들에게는 평당 25만원의(현재 3백만원) 저렴한 대지가격으로 땅을 불하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준비해 주었으며 미해당자(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이 분리되어 결국 89년 8월에는 세입자들이 주축이 된 43세대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구청은 이에 멈추지 않고 유덕준(47)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입자들마저도 와해시킨다. 즉, 유덕준이라는 사람이 『국방부에서 하는 나라일이니 도와주어야 한다』『지금 나가면 얼마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강제철거가 될때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회유로 당장 현금이 없는 세입자들로 하여금 이주를 안할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그 뒤 같은 수준의 일반세입자들이 도시외곽 빈민촌으로 흘러들어간데 반해 2백만원짜리 월세를 살던 유덕준은 3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어가 구청에 매수됐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케했다.

일본도를 휘두르는 철거촌의 조직폭력배

더욱이 최근에는 철거가 된 마을에서 반대를 무마시키고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고 있고, 경찰은 오히려 이를 비호해 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갈곳 없는 철거민들을 더욱 거세게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 10월9일 밤 10시30분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 재개발지역 세대위 소속 주민 3백여명이 이마을에서 조직폭력배들의 폭행과 협박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자, 이날 회의를 통해 이들을 몰아내기로 하고 그들이 머무는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 그냥 나오는 순간에 일본도, 가스총, 도청이 가능한 무전기, 쇠파이프, 손도끼, 사시미칼 등으로 무장한 이들이 공격을 가해 이경수(26)씨를 일본도로 우측대퇴부를 찌르고, 손도끼로 왼쪽 상완부 가격,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하는등 이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10일 새벽 2시30분까지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김재민, 이근욱, 김홍경씨 등 10여명을 상해하는 등 이곳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에 마을 주민 73명이 고소를 했지만 2명만이 구속되었고, 나머지 20여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 나왔다.

다음날 마을주민들이 그들의 숙소에서 발견한 현금명세서를 통해 조합으로부터 6월24일 2천5백만원, 8월3일 2천만원, 8월10일 3천5백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 이들이 조합의 사주를 받고 주민들을 쫓아내기위해 들어온 조직폭력배임이 밝혀졌다.

1주택에 12.66명이 살아야 하는 철거대책

이렇듯 가옥주와 세입자의 분리책동,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노상으로 내몰고 있는 강제철거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어 왔다. 현재 4백만에 이르는 빈민촌이 60~70년대의 기형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농촌이 피폐화되어 감에따라 농촌인구가 어쩔수없이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나타난 사회구조적 모순의 형태임을 감안할때 정권이 철거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어야함은 당연하다. 최근의 철거민 주거대책도 가옥주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지급, 세입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20평내외)의 소형아파트 방1칸 특별분양권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생활환경이 별반 차이없는 철거민촌의 생활수준을 가정해보면 가옥주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분양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분양금을 내더라도 관리·유지비를 책임질 수 없어 분양권은 복부인이나 투기꾼들에게 전매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소형아파트 방1칸 분양권은 입주를 하기위해서 1천14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하는데 2백~3백만원 보증금에 월 3~4만원의 임대료로 살아가는 세입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 하며, 만약 입주를 하더라도 세입자 평균 가족수 1세대당 4·22명임을 감안할때 1주택에 12·66명이 거주해야만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국 세입자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전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50~71%부과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분양권을 전매하고 지역을 떠난 세입자들이 2~3년후에 최종징가액의 50~71%의 세금을 납세해야만 하는데 이는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프리미엄등이 엄청남을 감안해보면 나중에는 전매한 돈보다 많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까지 하는 불합리한 대책일 뿐이다.

▲『올겨울을 지낼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현대산업건설회사정문앞에서 10여일 이상을 철야 농성중인 구로3동 주민들

『임대주택은 그동안 목동이후 우리철거민들이 요구해온 것이며 임대주택건설은 실제 우리 철거민들이 입안한 것입니다. 모아논 돈없고 벌이도 얼마안되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월3~4만원씩 내고 살아가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부담없이 들어가 살수있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위원장 고광석씨의 말처럼 임대주택 건설을 이루어 철거민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를 추구하는 현 사회가 책임져야할 당연한 과제이다.

6공화국이 들어서기도 전에 대통령선거공약으로, 그리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내용없는 주택정책을 강조해오고 있는 노태우 정권은 현재 복부인·투기꾼, 독점재벌 건설기업의 배만채우기 위해 자행되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에 앞서 임대주택을 골자로 한 주거대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계속적인 반민중적 강제철거는 그 스스로의 자충수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취재팀〉
박종진 기자
허행진 사진기자

독자칼럼

"애국외대인은 하나입니다"

박 희 광
〈서양·영어4〉

지난 주부터 시작된 단대 학생회장 선거로 인해 이문벌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몇가지 현상들에 주목을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첫번째 문제는 주사·비주사논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주사」라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주사파=용공·좌경」이라는 용어의 출처가 현재 민주세력대탄압의 중심지인 「안기부」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주화투쟁을 해온 우리의 학우들을 좌경·용공 심지어는 김일성 추종세력으로까지 몰아세우며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체제유지의 기반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안기부는 지난 10월부터 소위 「주사파척결」을 민주세력탄압의 중심목표로 세웠다는 발표까지도 서슴없이 한 바 있다. 더불어 11월에 들어와서는 제도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하여 중심기사로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상황을 보도하며 「NL대PD의 싸움」, 「주사파와 비주사파간의 대립」이라는 등, 운동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등 일제히 학생들에 대한 매도의 포문을 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안기부의 책동에 대해 가장 냉정한 이성으로 대처해야 할 우리 학우들 사이에서 「주사파」니 「비주사파」니 하며 선거자체가 갖는 올바른 의미는 도외시한채 선거결과에만 매몰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1만2천 외대학우가 언제나 가장 열렬한 애국자라고만 믿고 지내온 필자로서는 도대체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공공연히 나돌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국외대가」를 부르며 함께 어깨 걸고 『애국외대인은 하나입니다』를 목청껏 외치던 모습을 보아왔던 전체외대인들한테 작금의 선거분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생각하니 씁쓸해 지는 것도 사실이다. 길가는 학우들을 불러 세워놓고 『아무개는 ××파입니다』『아무개는 △△파입니다』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민주세력 압살의 근원지, 학원탄압의 본거지인 안기부에게나 외대인을 끔찍히도 좋아하는(?) 청량리경찰서의 「애국자 킬러(Killer)」 김××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지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 이시간에도 반공이데올로기라는 것에 의해 1년 6개월징역을 선고받은 이중형(독교·4)을 비롯하여 정재원 총학생회장(일어·4) 전갑기(경영·2) 그리고 또 지난해 총학생회장 함철성군등 많은 외대학우들이 차가운 감방속에서 단식투쟁과 독방으로 이어지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제발 더이상 주사파네 비주사파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선거는 아무개나 아무개의 당선 또는 낙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가 얼마나 학생회를 견실히 이끌어갈 수 있는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내어 참된 중흥외대를 일궈낼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심있는 애국자를, 우리의 단결된 대오 총학생회와 단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는데 주력하자. 우리는 결코 안기부의 술책에 허물어지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처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애국외대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넣도록 하자.

외대만평

천연기념물이라우

■대우 Hi-Touch Project Ⅲ

Open, Sesame!

●음성인식 전자렌지

Open, Sesame!

알리바바의 주문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그 동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스스로 문을 여는
음성인식 전자렌지 이야기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며,
회전접시(*Tray*)가 나와 저절로 준비완료!
조리 프로그램, 진행과정……모든 것을
음성과 화면으로 알려주고……

독신자들이나 여학생들이 특히 반가워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속에서가 아니라,
대우전자의 과학 속에서!

대우전자는 지금,
그 어떤 하이테크놀로지로도 충족될 수 없는
인간내면의 잠재욕구들을 첨단기술의 복합응용으로
하나 하나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이터치(Hi-Touch)의 세계—
그것은 곧 기계의 굴레로부터의 해방,
메카니즘의 초극(超克)을 위해
대우전자가 제시해가는 "인간기준"입니다.

대우전자

강연초록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변화

지난 11월 7일(화) 본교 대학원 소강당에서는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주최로 폴란드 야길로니안(JAGIELLONIAN)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안드레 카피셰프스키(Andrzej Kapiszewski)박사를 초청하여 「최근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초록은 현재 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 박태성간사께서 세미나내용을 정리, 본보에 보내온 글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후 논의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논문요약

폴란드는 16세기 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부강하면서도 고도의 문화를 지닌 나라였다. 그러나 1772년, 1793년, 1795년에 주변강대국들(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의 연속적인 침략으로 완전히 체제분열 상태에 이르러 그후 1백23년 동안 독립국가의 면모를 잃었다.

국가를 잃은 폴란드 국민은 지속적으로 해국적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1918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원칙」의 선언에 힘입어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의 혼란속에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전장화하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폴란드인구의 15%이상가 목숨을 잃는 참극을 경험하였다.

전후 소련의 승전과 함께 폴란드는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설질적으로 모든 결정권은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집중되었고 반대당은 불법화되었으며 소련의 영향은 군사·정치·경제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었다. 무종교주의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정권은 카톨릭은 물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물가의 불안정, 저질의 소비제품, 늘어나는 외채, 농촌의 「황폐화 등의 경제적 문제는 이러한 저항운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바랜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 야루젤스키 장군은 계엄령선포와 더불어 공산정권의 안정을 희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상황변화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정책의 선언, 헝가리의 급진적 민주화 등은 폴란드 국민에게 사회주의적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공산당은 지난 봄 기존의 입장을 포기하고 반대당을 인정하는 자유선거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바랜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상하원선거에서 대승을 하였다. 결과로 이제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바랜사의 참모 마조비에스키 수상과 나란히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다.

폴란드의 정치와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풍부한 경제적 자원국가이면서도 경제적 황폐를 경험하고 있는 폴란드를 경제이론으로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오직 정치로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즉 폴란드의 공산주의체제는 실제에 있어서 이론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농업정책, 공업정책, 가격과 임금구조 등은 불안정하고,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과 가중된 외채, 암시장의 성행과 부패등이 문제되고 있다. 결국, 폴란드에서의 중앙통제계획체제의 비능률을 극복하고 폴란드가 올바른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체제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는 많은 희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신정부의 정책은 바로 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토론요약

이인호교수(서울대): 카피셰프스키 교수의 발표내용은 주로 폴란드의 역사와 현실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뿐, 현제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양동주교수(뉴욕대): 카피셰프스키교수는 폴란드의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체제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체제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과연 자유로운 조직과 참여, 자유선거 등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단순한 제도적변화에서 벗어난 경제체제의 변화를 인급하였는데 폴란의 계획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데 어떠한 난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병권교수(외대): 폴란드가 민주화과정을 진행시키 나감에 있어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날 때, 현제 소련을 둥에 업고 정해진 폴란드-독일간의 국경선이 다시 문제로 대두된다면, 즉 독일이 국경선 반환을 요구한다면 폴란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카피셰프스키교수의 응답: 먼저 폴란드와 동구유럽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폴란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타 동구국가의 문제화는 다르다는 것이다. 모두가 비슷하게 보이는 동구국가들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한정될 때 뿐이라 하겠다.

폴란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난점은 정치지도자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와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

폴란드가 공산주의체제에서 다원주의적체제로 변화한다면 이들 무능력한 사람들이 변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이들을 대체해야 하는데도 그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적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폴란드가 다원적 민주체제로 변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공산당, 국가, 관료들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비능률적인 경제체제를 탈피한 계획된 사회주의 체제를 일컫는 것이다. 많은 폴란드인들이 독일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폴란드-독일 관계를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하여 전망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양국관계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사람산맥

정 환 우

「일시적인 부제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현제 사물들을 구별해 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희소해 보이니까요…….」 그것은 나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꿈에서나마 당신은 나로부터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지마자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본연의 내마음의 정열과 내 가슴의 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부인인 예니 폰 베스트팔렌(Jenny von Westphalen)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예니는 마르크스보다 4살이 위였다. 1836년 여름 밤스와 예니와의 약혼은 당시 사회의 전통적관념과 풍속습관에 대한 대담한 도전이었다. 1843년 6월19일 그들은 약혼한지 7년만에 예니 어머니가 살고있는 크로이쯔나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들의 숙원을 이룩했다. 이 기간 예니는 애정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하였으며 귀족 친척 및 벗들과 극히 고통스러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니는 밝스의 국전한 사랑을 받는 아내였을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였으며 또 마르크스의 이론연구를 도와주는 비서와 조수인 동시에 충실한 전우였다. 예니는 한평생 마르크스를 따르면서 남편이 헌신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의 사업으로 간주했다. 이 역량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자기의 모든 원고를 아내에게 통독하도록 맡겼으며 또 아내의 의견을 특히 중시하였다. 그는 사전에 예니의 의견과 평론을 듣지 않고서는 어떠한 원고도 인쇄에 회부하지 않았다 」고 라파르그는 썼다. 오

마르크스와 예니의사랑

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공산당선언」의 유일한 한페이지 초고의 첫 두줄을 바로 예니가 쓴 것이다. 「자본론」의 빠른 완성을 위해 예니는 밤낮으로 대량의 원고를 정서했다. 예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칼의 조그만 방에 앉아서 그가 알아보기 힘들게 쓴 논문들을 정서하고 있던 나날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마르크스는 각국의 정부에 의하여 수차례 추방되었다. 따라서 예니도 마르크스와 함께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1849년 6월 29일, 예니는 쉬테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칼은 언제나 생기 발랄하며 정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타격은 멀지않아 우리의 전해가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될 전주일뿐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친구에게 다시 태어나도 혁명가의 길을 걸겠지만 결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리라. 마르크스의 전기(傳記)소개가 실린 어느 신문의 다른 면에는 김현장씨의 아내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나있었다. 수배중에 유산(流産)을 하고 희복도 안된 체차가운 감옥에 있다는…….

인간의 순수한 본성에 마저 이처럼 잔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자(者)들은 누구인가.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석사과정2학기)

서반아·라틴아메리카 교과서에서 한국(Corea)에 대한 부분 조사와 검토

제 3 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학술발표회 중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서반아어 사용국들은 서반아어를 문화중추국으로하여 거의 같은 언어, 종교, 문화의식,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서반아 및 라틴아메리카 교과서에 있어 한국(Corea)에 관한 부분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논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교과서 이외에도 서반아에서 출판된 세계문화사와 백과사전도 자료로써 이용하였다.

서반아와 라틴아메리카 교과서에서 한국에 관한 사항은 세계역사와 세계지리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연구는 라틴아메리카를 정치·문화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국가등의 역사·지리교과서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역사에 관한 부분으로 멕시코에서 중등3학년 과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역사속의 멕시코(Mexico en la historia)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은 고려왕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기술되어져 있다. 또한반도에서 일본에 대항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한민족이 해방을 이루는데 가장 적극적인 활약을 한것으로 사회주의성향의 해국짐단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해방직후 북부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했다는 표현을 쓰고 미국은 남부를 점령했다고 한다. 그리고 6·25전쟁을 미국이 남한을 자본주의체제 수립하에 미증속국으로 만들으로 통일을 쟁을 강대국들의 선무기 실험이었고 이로인해 남북시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 시:1989년 11월 11일
장 소:한국에술진흥재단 소강당
주 최: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발표자:장선영〈본교 서반아어과교수〉

여기에서 우선 사실과 다른점들을 보면 고려왕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조선왕조로 수정되어야겠고 이루려는 일방적 조치속에서 북한의 무장부대는 남한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있다. 3년에 걸친 전쟁이 끝난후에 1백여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후과를 남겼으며 분단은 계속 유지되었고 교과서에서는 한국전 일본식민지시대의 항일전쟁에서 사회주의 성향집단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짱범한 민족주의 항일운동집단을 올바로 보지못한 오류를 발전할 수 있다. 또 남한정부를 미국이 승인함으로 국제적 긴장을 야기시켰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유엔군편성에 있어서도 미국을 제외한 14개국의 1백만여명의 병력이 참전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참전국수는 16개국이며 병력수는 30만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문제시되는 사항들을 추론해볼때, 사회주의국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교과서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 중등3학년 과정의 교재로 쓰이는 「역사(Historia)」에서는 사회주의적 선전문구가 눈에 띈다. 즉 북부는 소련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남부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호와 조종사이에는 의미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남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소련이 한국의 통일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 지리부문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 굳이 찾는다면 북한은 국호가 조선인민공화국, 주요도시는 평양, 원산, 청진 그리고 남한은 국호가 대한민국, 주요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라고 기술할 정도이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리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불공평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체제국가는 일본뿐을 예거하고 있고, 사회주의체제국가는 중공, 몽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을 들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후진국이라는 주석을 달고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논함에 있어 남한의 이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은 주요연초생산국으로써 그리고 어업부문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된 나래들중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을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국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중등1학년 과정으로 출판한 「역학적 지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북부지역을 비롯해서 한국과 그리고 태평양에 접한 시베리아의 연안은 겨울철에 얼어붙은 냉풍에 시달리고 있다. 경월달에 폐이징은 중앙시베리아 만큼이나 춥다.」라고 되어있는데 주로 한국의 위치를 일본의 위치적 관도에서 관찰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단순히 일본의 자료에 의해서만 작성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역사와 지리에 국한해서 서반아와 라틴아메리카교과서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관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큰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지배했다. 둘째, 한국은 해방후 미군과 소련에 의해 점령당했다. 세째, 남한은 낙후된 농업국이다. 그밖에 사소한 오류도 여러개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교과서들이 한국을 위해 사용한 자료 거의가 너무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글의 내용을 볼때 사회주의자가 쓴것같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사항들이 오래된, 그것도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그러한 식으로 인식되어 지는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는 시급히 그 오류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기록정리:추인수기자〉

은 행

소금상자

은행은 저축·대출의 중간과정에서 얻는 이윤과 각종 금융상품판매로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은행은 기업자본으로 자금을 대출·투자하여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초과노동을 강요해 얻는 잉여이윤의 일부를 할당받는 「대부자본가」로서 위치하게된다.

한편 경제적으로 대외에 종속된 국가는 외래독점자본의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직·간접투자로 인해 국내노동자들이 창출한 잉여노동량의 일부를 제국주의본국으로 수탈당하기도 한다. 얼마전 국내에 세워진 미국의 A은행 4개지사가 1년간 본국으로 송금한 순익이 국내 모은행 전체사의 1년 수익보다 많았다는 통계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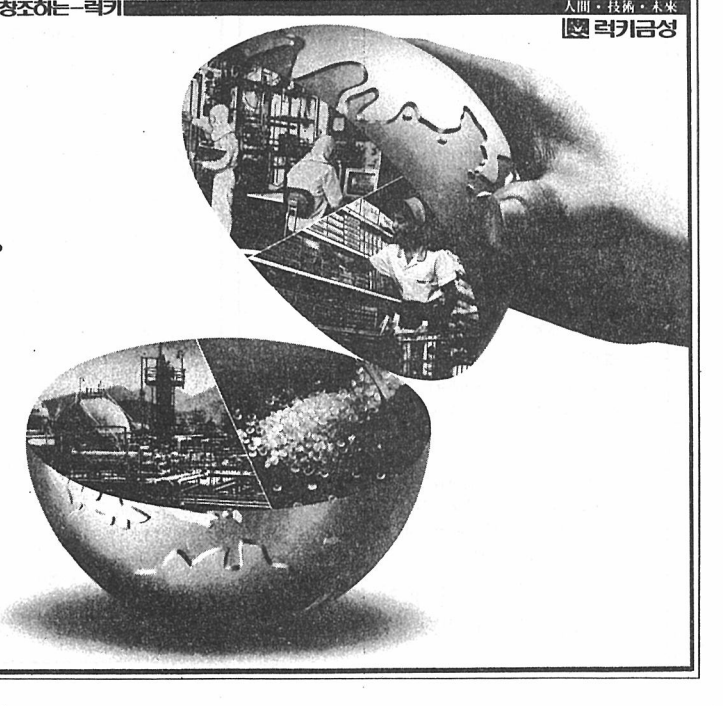
신물질·신소재·신지원을 창조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미래산업까지 —

럭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정신으로
중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럭키 —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선도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의지를 통해 "세계속의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한 럭키 —

럭키는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는 물론 무공해농약, 동물성장촉진제, 인터페론, 부작용없는 제3세대 항생제개발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신소재, 신지원의 창조로 풍요한 미래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럭키는 사업분야를「생활·산업부문」,「화성부문」으로 2원화,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IDEAL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산업부문
1947년 창업이래「신뢰할 수 있는 럭키」의 이미지로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럭키는 럭키치약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과화장품, 건축 및 산업자재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유전공학을 이용한 의약품등 첨단제품 또한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성부문
합성수지 기초원료와 고도의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함은 물론 엘지나이일 프라스틱 등의 신소재를 개발해온 럭키는 첨단산업을 갖춘 여천석유화학단지와 나주공장의 네트워크체제를 통해 국내화학공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럭키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

◇동문모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우리생활

『자! ×××선배님과 그 파트너 되시는 분 나와주세요. 여기 풍선이 세개 있습니다. 이 풍선을 가슴과 가슴사이에 놓고 사정없이 눌러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재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이문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던 모 동문회 카니발의 한장면이다.

대학에 들어와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누구나 여러가지 「만남」과 「모임」의 기회를 갖게 된다. 자기가 속한 학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과M·T나, 신입생환영회, 학회원과의 만남, 동아리인과의 만남, 그다음으로 주어지는 만남이 바로 「동문회」라는 모임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캠퍼스는 신입생 입학철인 4·5월에 이어 또한번의 동문회, 카니발 철을 맞고 있다. 계단과 복도의 잘 보이는 위치에는 오색형광으로 장식된 카니발 공고가 나붙고, 각 출신학교의 특성을 살린 현수막들이 캠퍼스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 보고싶었던 고교선배와의 만남은 물론 즐겁고, 평소에 구경만 하던 「호텔」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점찍어두었던 여자친구와 가까와질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그러나 단지 「친목도모」「인화단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문회나 카니발은 그 목적을 넘어 많은 문제점을 간직한 채 매년 그대로 답습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문카니발에 처음 참가하는 한 학생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고향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있는 종석이는 집으로부터 한달에 약16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는다. 방세와 책값을 제외하면 한달동안 쓰는 돈은 8~9만원 안팎이다. 같이 올라온 친구들과 비교해 볼때 그리 적은 돈은 아니다.

종석이의 고민은 얼마전 있었던 동문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번에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졸업생환송회겸 동문카니발에 참가하라고 하는데 회비를 4만원씩이나 내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 고지식한 종석이는 얼마전 예의가 없다고 선배님에게 각목으로 기합을 받은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열리는 모임에는 대기업 좋은 자리에 있는 선배님들도 오실거란 생각이 들어 한달 생활비의 반을 회비로 내버렸다. 동문회장에게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호화로운데서 동문카니발을 가져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배님들이 잘 오시지 않기 때문이란다.

카니발이 열리는 날 종석이는 또 한가지 고민을 갖게 되었다. 틀림없이 파트너를 지참(?)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따라나설 파트너도 없고 같은 과 여자친구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는 것이다. 결국 고민끝에 파트너문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도 초라해 보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양복을 빌려입기로 했다. 카니발이 열리기로 한 장소에 20분정도 늦게 도착하니 라운지 안에는 몇백만원은 될 것 같은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번쩍거리는 테이블 위엔 TV에서나 보아왔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조금은 어색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선배가 부른다. 『너 파트너 없지? 음식 좀 날라라…』 기분 나빴지만 선배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 대충 심부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다. 동문회장의 사회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었다.

과자를 먹다보면 입을 맞출수 밖에 없는 「빼빼로 게임」,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끌어 안을 수 있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보며 「나도 파트너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앉아서 구경만 했던 게임이 끝나고 선배들이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왔다. 따분한 노래지만 웃는 얼굴로 들어준다. 「카니발이 나에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장내의 불이 꺼지고 귀를 찢는 듯한 「할렘 디자이어」가 터져 나왔다. 디스코를 추는 동안 왜 이리 춤을 못출까라는 생각뿐이었고 춤이 끝나고 「블루스」를 추는 선배들을 보았을 때도 찝찝한 기분은 가셔지지 않았다. 결국 3시간여동안 카니발이 간단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늘 그래왔듯이 몇몇 선배들이 2차를 가잔다. 2차는 그래도 소주집이니까 편안하게 놀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며 인근 소주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자이야기와 군대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며 소주를 부어댔다. 몇잔의 소주를 먹었는지 기억이 안날 무렵 상당히 높은 기수인것 같은 선배가 『짜샤 너희들 아직 총각이냐? 오늘은 내가 책임질테니 미아리로 가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잘 놀던 몇몇 동기들은 환호성을 올렸지만 종석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것 같은 기분에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술에 골아 널부러진 동문들을 일으켜 미아리로 가는 택시를 잡는 도중 종석이는 몰래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었다. 「선배님들도 내일이면 후회하리라」라는 생각을 하며….

잘 곳이 없어 근처 만화가게로 가는 동안 선배의 몽둥이 찜질과 쪼다같은 놈이라는 욕설이 생각났다. 그리고…. 어느 동아리 선배가 말했던 카니발(Carnival)이란 말의 어원이 자꾸 생각났다. …「야만인」이라나…》

미·일의 문화침탈, 퇴폐풍조에서 비롯
대학인의 건강한 가치관 투영돼야

지나치게 극단적인 일례일 수도 있지만 건전한 의식과 냉철한 사고를 가져야 할 대학인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동문회의 문제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결코 우연히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며, 그 근본원인은 일본과 미국의 직·간접적인 제국주의 문화침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각목을 휘두르는 선배의 모습은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심어놓고 간 군국주의 문화의 전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호텔 라운지라는 카니발 장소와 귀족들의 음식, 그리고 서구식 정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문화적 사대주의에 다름 아니다. 또, 앞의 예처럼 동문선배를 알아두는 것이 사회생활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후배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우선주의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그저 형식적이기만한 잠깐의 사업발표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술자리속에서 어떻게 선후배간의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목」이 도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스트레스를 주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파생된 스트레스를 개인적인 「자기학대」와 「후련함」만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스트레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문회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아도 치를 수 있다」는 모범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현 사회구조가 가지는 모순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예로 현재 서울대나 고려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모교방문」이라든가 전교조결성을 계기로 잠깐 활성화 되었던 「참교육 실현을 위한 동문모임」, 또 본교 모 동문회에서 벌이고 있는 「고향발전을 위한 토론」「고3 수험생 진학지도」등은 여타 동문회에서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사업일 것이다.

동문회가 단순한 「친목도모」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교의 발전을 위한 후배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만남」으로 발전 하는 것은 대학인이 가져야 할 「건강함」을 대학 생활 문화속에 실현시키는 일일 것이다.

「만남」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한다. 서구에서 무분별하게 유입된 개인주의, 소비향락적 문화를 청산하고 서로에 대한 포근하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이루어내는 「동문회」는 이미 시들어버린 대학 생활 문화를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또하나의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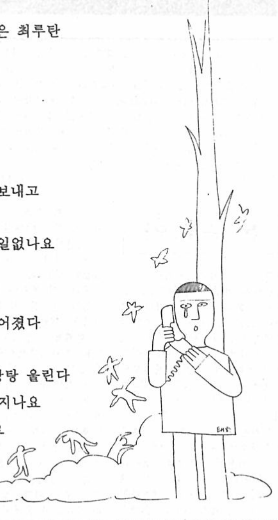
〈이상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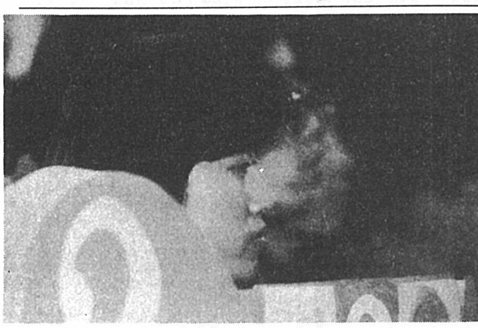
제1회 임수경 통일문학상 시(詩)부문 당선작

아니요, 데모안해요 아버지

완강한 격전끝에 밀리다
하늘엔 연신 고향집 연기같은 최루탄
저문 하늘 노을에 섞여
눈물과 쓰라림으로 덮치고
울컥 아버지 생각
공중전화박스에 들어서다
백동전을 삼킨 전화기는
가쁜 숨소리같은 신호음을 보내고
아버지 저예요 광주예요
몸성히 잘있어요 집안엔 별일없나요
아니요, 데모안해요 아버지
걱정마세요
경고음이 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손을 들어 구호를 외친다
완강한 적을 향해 하늘을 탕탕 울린다
아버지 고향엔 지금 감꽃이지나요
감꽃이져야만 감이 열리나요

최은수
〈전남대 국문3〉





시선 "89"

파수대

제24대 서울캠퍼스 총·부학생회장 선거 제1차 유세장에서 〈허행진기자〉

신간소개

바리케이드를 치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시창작2분과 지음

수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로 전개되었던 88·89년 현대중공업파업투쟁을 형상화한 공동창작연작시집이다.

작가들이 파업투쟁기간동안 함께 싸우면서 쓴 40여편의 민중시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그들의 외침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백산서당펴냄 값2천원〉

녹두서평3

「반제국주의 민족대단결」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녹두서평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변혁운동의 사상이론 논쟁」을 다루고 있고, 집중기획 「분단 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 시론「고르바쵸프의 개방정책에 따른 아시아, 한반도 정책변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연구 「쿠바혁명의 재조명」, 독자투고 「80년대 변혁운동에서의 품성」등의 글이 실려 있다.

〈녹두펴냄 값 4천5백원〉

칸트, 헤겔, 마르크스는 이미 낡았는가!
—이와자 시게루 외 지음
—김갑수 옮김

칸트, 헤겔, 마르크스에 관한 철학적 문제를 인간관, 인식, 공동체와 자유, 역사의 철학 면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대 독일을 대표하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의 철학적 고찰을 통해 뉴아카데미즘의 영향으로 현실성을 상실해 가는 철학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날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성사펴냄 값 3천5백원〉

문화단신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11월18일(토), 19일(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대강당에서 2집 음반 출반기념 정기 노래공연을 갖는다.

종전 콘서트 형태의 획일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이번 공연은 2집 음반 수록곡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와 생활모습을 담은 1부, 참교육을 소재로한 노래극과 통일의 의지가 담긴 노래들이 공연될 2부로 구성된다.

▲연락및 문의처:노래를 찾는 사람들 사무실 511—2852

백지대자보

주제:내가 바라는 총학생회장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사람 —이문학우—

임수경 대표를 구출할 수 있는 용기와 공안정국을 분쇄할 수 있는 지혜와 노태우를 쳐 부술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 —지리산 호랑이—

내가 바라는 총학생회장은 수퍼맨처럼 기운 세고 홈즈처럼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철한 투쟁정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철학과 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사람 —동주—

외대의 분열을 1년 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25대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

총학생회장은 글자 그대로 총! 학생회장이다. 총!총! 총대를 메고 우리학생들을 통일로 이끌어야 할 분 —변강쇠—

우리의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기를 바란다. —법학과2—

다음 주제는 「외대학보」입니다.

우리말의 쓰임새 (176)배

〈축대를 육안으로 보면 배가 불러졌거나…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TV「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중에서〉

여기서 「배」는 의인관적 은유의 좋은 예이다. 「배」는 원뜻이 「동물의 배」인데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축대의 배부분」을 의미한다. 「길목」에서 「목」은 「길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뜻하고 「산허리」에서 「허리」는 「산의 허리부분」을 가리킨다.

재 학 생 모 집 요 항

1. 모집학과 및 인원
   일본어과(2개반) 50명
2. 교육일정
   1)기 간 : 1차:'90년 2월 5일—'90년 4월13일(10주간)
   2차:'90년 4월16일—'90년 6월22일(〃)
   3차:'90년 8월 6일—'90년 10월12일(〃)
   4차:'90년10월15일—'90년 12월21일(〃)
   2)교육시수 : 1일 3시간(18:30—21:20)
   3)주당일수 : 5일(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선발방법 : 등록순
5. 제출서류 : 등록원서 및 사진1매
6. 수강료 : 135,000원(월 54,000원 상당)일시납
7. 등록마감일(1차) : 1989. 11. 24(금)
8. 등록장소 : 연수원 교학과
9. 기타
   본 교육생의 선발은 지망학과 필기시험후 합격자를 발표키로 하였으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시험없이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기로 변경하였음.

1989년 11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국 어 연 수 원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의 입영원 취소 대상 안내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입영원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동대학 또는 동대학원의 재학사유로는 징병검사 연기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없도록 제한 하였으나, 금년 3월17일부터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선 처리하고 있다.

○취소대상
—징병검사를 받기전에 취소를 원하는 자는 이를 취소하고 징병검사 연기
—징병검사 결과 입영대상자 또는 입영 연기중인자로서 입영통지전에 취소를 원하는 자는 이를 취소하고 입영연기
—입영통지된 자는 취소하지 아니하고 입영조치 하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고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자는 이를 취소하고 입영연기 처분

○취소사유 및 구비 서류
—타대학 편·입학, 장학생 선발, 학군 무관후보생 지원시 학교장 확인시
—학비조달 가능등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본인 및 친권자의 사실 확인서

○출원관서
—징병검사 연기자 : 본적지 구, 시, 읍, 면
—입영연기자 : 현 역 : 본적지 구, 시, 읍, 면
보충역 : 거주지 구, 시, 읍, 면

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

종로2가에 (주)시사영어사가 직영하는
본격적인 영어회화 학원
Si-sa ECC
영어회화 전문코스
English Conversation Center
제24기 개강 11월27일 등록접수중!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 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요새화
●1일 2시간·주 5일·4주 단위 수업
●집중코스는 강남 ELS, 회화전문코스는 강북 ECC
●Tuition은 일반학원 수준, 교육의 질은 국내 정상급
●다양한 학습 서비스, 풍부한 학습 편의시설과 공간
●총 17단계 교과과정·능력별 학급편성
한 학급 정원 13명 내외·영어로만 수업진행
●재학생을 위한 써비스
주1회 Pronunciation Class무료강의, Writing Club, Conversation Club 등 다양한 Club활동, Self-Study Lab, AFKN Room, A.V.Room 등 학생전용의 편의시설
●미국 Language School과 같은 학습 분위기
●강의시간
오전반 7:00~ 8:50 / 9:00~11:00 / 11:00~13:00
오후반 2:00~4:00 / 4:00~ 6:00 / 6:00~ 8:00 / 8:00~10:00
등록장소 : Si-sa ECC 입학안내실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빌딩3층)
(주)시사영어사 부설
Si-sa ECC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상담전화 : (277)6812~4

◇'89년 2학기 기획기사 정리

진척없이 넘어가는 학내복지

구체적 대안없이 형식적인 사업추진

학내 구성원의 관심과 해결노력 절실

○… 조선, 경기, 세종대학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로 …○
○… 가시화된 문교부의 학생활동탄압은 대학내 구성 …○
○… 원의 서로 믿는 학원을 건설키위한 '학원자주화운 …○
○… 동」마저도 위축을 가져왔다. 각대학에서 제기되 …○
○… 기 시작한 학원자주화의 요구는 본교도 예외가 …○
○… 아니이서 89년 초반 등록금동결투쟁시 맺가지 가 …○
○… 시적인 것만 획득하였다. 이와같은 미비한 결과 …○
○… 물은 산적하였는 본교내부 복지등의 문제를 생각 …○
○… 할때 매우 미비한 해결방안이라하겠다. 2학기에 …○
○… 서울캠퍼스 고시반 자전폐쇄결정은 이 것을 잘 …○
○… 나타내준 예라하겠다. 이에 학내문제해결및 학원 …○
○… 의 자주화를 위해 이번학기 본보 기획면에 게재 …○
○… 되었던 학내의 소소한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 …○
○… 상황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점은 89년2 …○
○… 학기를 맞라하되 주요기사중심으로한다. …○

〈편집자〉

서울캠퍼스 고시반시설확충

서울캠퍼스 사법고시반(의향제)의 지난 8월28일 폐쇄결정과 나머지 세개 고시반의 동조폐쇄 결정은 산적한 학내문제의 심각성을 잘나타내준 것이라하겠다.

이 폐쇄결정은 학원자주화회의측에서 상당한 시간속에 논의되다가 결국 「고시반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구성하게 하였다. 10월4일 「고시반 발전을 위한 소위원회」회의 측에서 학교측과 학생들이 함의한 내용은 당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이전을 「건의한다」라는 강제력없는 단어로 함의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하기로 합의한 「고시반 발전집행위원회」는 학교당국2인, 교수2인, 총학생회대표1인, 고시반대표2인으로 구성, 지난11월10일(금)첫모임을 가져 고시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라 현제 진행되고있는 고시반시설확충공사는 소음방지를 위한 삼중창설치, 조명시설의보완, 에어콘, 가습기, 공기정정기설치, 공간의 확장등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고시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해복과 그 금액을 확대시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시반이 우수신입생 유치와 학교홍보에 큰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일차적으로 계획된 시설확충은 그것이루어진후에도 타교와 비교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건의되는 고시반 이전을 학교당국은 반드시 외대발전중기계획에 포함시켜야될것이다.

대학생협동조합

대학내 구성원의 「경제적 공동체」뿐만아니라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기위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서울, 용인 각각 90년2학기건설과 이번 학기내에 건설준비위원회의 발족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양캠퍼스의 진척상황은 서울캠퍼스는 10여차례의 학원자주화 회의속에서 학생회관내 구내다방 학생직영화, 종합구판장설치, 도서관지하휴게실화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도서관지하휴게실화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위원장 한주현군(동양·일어4)은 「90년 1학기에 도서관지하에 휴게실을 설치한후 2학기에는 학생회관 휴게실의 학생직영화와 함께 반드시 생협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있으나 서점, 매점등은 단계를 세워서 직영화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 있지못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용인캠퍼스는 자판기와 교양학관에 설치된 구판장의 직영화외에는 생협건설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학원자주화회의속에서도 생협에 대한 안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결국 이번 학기내에 준비위원회를 발족 다음년도에 생협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식당 시설및 음식점문제

식당업주의 무성의와 학교측의 관리소홀및 계정지원 부족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용인캠퍼스 식당문제가 아직도 음식질, 위생등이 개선되지 않고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직영화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식당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이번 학원자주화사업결과 총학생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면 어문학관식당의 경우 의자와 탁자등의 상시적교체및 내부시설보완, 학생회관 식당은 학생회관휴게실을 식당공간으로 확보해 협소한 주방공간을 확장하는등 공간을 제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질및 위생관리면에서는 교수식당에만 두고있는 영양사를 내년에 건설될 후생계에 채용해 해결할 계획이며, 이번 겨울방학중 열청소독기등 위생설비를 도입,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학지만 이러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이 학교측의 제정지원과 경영형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식당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수부족문제

현제 본교에서 진행되고있는 교파과정 개편문제는 결국 교수충원과 연관이 닿아있어 이 것에 대한 계획수립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선 절실하다고하겠다. 그러나 학교측은 10여명의 교수를 새로 영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자연계열의 신설학과등을 고려할때, 진정 학생들을 위한 충원은 되지못할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총학생회장및 단대학생회장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교파과정개편과 교수충원을 공약으로 내걸고있어 이후 이문제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학 연수원

지난 하계방학중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한 어학연수원은 본 목적인 회화를 중점으로 한 어학능력 배양뿐 아니라 방학중 전무했던 용인캠퍼스의 생활문화풍토조성및 캠퍼스공동화 방지등 여러면에서 실효성이 있어 확대될 방침이나, 겨울방학에는 개설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연수원 개설당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강사진초빙및 학교측의 지원미비로 인한 적자운영, 시설부족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에 학교측과 공동운영을 위한 「어학연수원발전추진위」을 구성할 계획이며, 연수대상도 전외대 차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계어학연수는 난방비로 인한 연수료부담이 클것으로 우려돼 근년간은 하계방학중에만 실시하기로 결정, 학교측의 계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획부〉

＊영화상영안내(11월14일(화)~20일(월))

영화명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14일(화)	조소(潮騷)	썬 더 블 루
15일(수)	일곱번째 바다표범 (The Seventh Seal)	집 행 자
16일(목)	블루벨벳(Blue Velvet)	F/X
17일(금)	율(Yôl)	아뻐는 출장중
20일(월)	인도로 가는길 (A Passage To India)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상영시간 및 장소	매일 오후2시 시청각 비데오룸(2202호)	매일 오전10시 시청각 비데오룸(1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원에서는 외대생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중국, 태국, 불란서, 소련 뉴스를 녹화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각 비데오룸 앞의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교직원동정

◎박원탁교수 책출간

박원탁교수(아프리카문제연구소 소장), 「아프리카지역정치론」출간. (명지출판사)

◎김정기교수 방송법 관련 세미나 참석

신문방송학과 김정기교수(방송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11월11일(토)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방송위원회의위상, 방송체계, 방송법관련 세미나에 참석.

◎김학수교수별세

김학수교수 별세(노어과1회졸업)

-지난 11월12일(일)오후11시45분 서울대 병원에서

-고려대교수, 전 본교 노어과교수, 교무처장 역임.

학과움직임

◎인도어과「등문인의 밤」

동양어대 인도어과, 11월18일(토) 오후5시 이문동 레벨호프에서 「등문인의 밤」개최.

◎프랑스에술제

서양어대 불어과, 사범대 불어교육과 주최로 11월16일(목) 오후5시 대학원(6002호)에서 학술심포지엄및 11월17일(금) 오후5시 대강당에서 프랑스에술제 개최.

동아리소식

◎「서우회」전시회

서울·용인캠퍼스 「서우회」, 개교35주년및 학산설립10주년을 기념하여 제12회 「서우회전」개최. ▲서울캠퍼스:11월9일(목)~11일(토)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용인캠퍼스:11월14일(화)~17일(금) 학생회관 전시실.

◎「얼소리」연주회

서울캠퍼스 「얼소리」, 독일문화원 문학서클 초청으로 11월18일(토) 오후6시 독일문화원에서 연주회 개최.

◎「P·T·P」전시회

용인캠퍼스 「P·T·P」, 11월13일(월), 14일(화) 양일간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제9회 「세계문화자료전시회」개최

총궐기투쟁 본격화

전국대회 잇달아·본교생2명 단식

지난 11월3일(금)의 1차총궐기에 이어 11·12일(일) 연이어 전국단위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있는 등 11월총궐기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3시 「광주학살·5공비리 책임자 처벌과 빈민철폐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본교생 50여명 포함 학생·교사·도시빈민등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공안통치분쇄와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 등을 결의한 이날 집회는 경찰 1천여명이 오전10시부터 최루탄을 쏘며 학내에 난입, 6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이며 대치하던 중 약식으로 30여분간 진행되었다.

또 노동자·학생 5천여명은 12일 서울대학교에서 「노동악법철폐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총궐기 참여를 위해 용인캠퍼스 학생 1백50여명은 지난 11월9일(목) 오후2시 해방광장에서 「공안통치분쇄및 광주학살 5공비리주범 노태우군정청산단을 위한 애국의대 2차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출정식을 10일 열고 고려대 도서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양어문대 학생회장 윤용배군(서반아어4)과 김상준군(서문·영어4)은 「국가보안철폐등을 주장하며 기독교회관에서 단식농성중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소속 신부들을 지지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일 것을 발표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학술문화제 15일부터 용인서 열려

「제1회 아프리카 학술문화제」가 학술심포지엄과 초청강연, 풍물전시등을 내용으로 오는 11월15일(수)부터 11월17일(금)까지 3일간 열린다.

15일, 교양학관 401호에서 박희성교수(아프리카어과)의 학술특강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제에 대해 과회장 이성현군(3학년)은 『기존의 아프리카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아프리카대륙 이해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기 위해 학술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5일:아프리카원어가요 발표(교양학관 401호) ▲16일:초청강연(一)선경 신승룡씨(전 케냐 나이로비 지사장)탄자니아인 차알스음초베(CHARLEL.K.H.MCHOME) ▲17일:학술심포지엄-아프리카의 정치·경제상황(교양학관 201호) ▲상시행사:영화제(어문학관 412호)슬라이드 상영, 아프리카풍물전시(학생회관 전시실)

서울 함칠성군 7일 구속 투본장 이중형군 실형선고

88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함칠성군(법·법학4)이 지난 11월3일(금)석관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연행돼,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주 7일(화)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소지등)로 구속돼 오늘(14일)성동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함군은 지난 8월부터 「한미문제연구소」결성과 관련 수배중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캠퍼스 전총학생회 사회부장겸 투쟁본부장 이중형군(사법·독교4)이 지난 11월10일(금)선고공판에서 집시법및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당선은

○…외대의 구심, 이문벌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양태가 국회의원 선거모습과 다를바 없이.

XX파, OOO파, 과적하다느니 11월총궐기를위해 단결해야할 후보들이 당선만 하고보자는 생각으로 혹색선전등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후보 제위! 임기가 끝난후 홍산에게 청송을 받는것이 진정한 당선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事).

○…바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라더니, 바른 지붕에 O물이 쏟아지는 날벼락이 왕산골을 급습.

지은지 1년 조금지난 학생회관 지하동아리실에 빗물과 함께 화장실물이 새고있어 사람은 피했지만, 수족과 같은 악기등 기물들이 파손돼 피해가 막심하다고.

철단기술(?)을 자랑하는 건축업자의 무성의로 인한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학교측의 관리소홀도 드러났으니 이후 보수공사와 함께 학교측의 피해보상을 당연.

○…결례도 빨기만 하면 행주가 된다는 논리를 유포, 자신의 죄를 희석화시키려는 기업주가 있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인쇄에 유해한 공업용 쇠기름으로 라면등 식품용품을 제조 판매하던중 발각되자, 오염물도 정수하면 수돗물이 된다는 말로 발뺌했던 것이 바로 그것.

라면매상하는 민초건강 외면한채 돈벌기에 급급한 악덕기업주는 공업용 쇠기름과 함께 그들을 뒤겨, 음식을 돈으로 보는자의 종말을 보여주어야 할듯.

○…앞으로 왕산골을 지켜나갈 상징탑이 세워진지 며칠되지 않아 하반부 백두산 모형에 금이 갔다는데.

야마도 외데의 발전을 위한 홍산들의 염원이 너무 많아 그것을 일일이, 들어 주다 힘에겨운 것과 함께 왕산골홍산들이 하나가 되지못한 것을 나타내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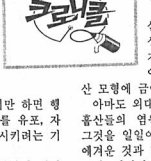
특히 백두산 모형에 금이 간것은 왕산골의 분열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니 상징탑의 보수와 함께 왕산골 홍산의 단결과 민족의 통일도 시급한 문제.

○…무너진 장벽은 우리 현실을 슬프게하고 오가는 사람은 7천만 민초를 부럽게하는데.

독일 민초의 단결된 힘은 가슴마다에 세워져있던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양체제간의 불신의 장벽을 넘어 드디어 베를린 장벽마저도 무너뜨려.

크로니클과 한반도 7천만 민초에게 고하니, 이제는 마냥 부러워만 할것이 아니라 모든 벽을 넘어 하나됨을 위한 의지를 굳게 세울것을 당부하오.

상징탑이 갈라진 이유



연재 만화〈46〉

비둘기 통신판

이문

총문학회 건준위 발기

과문학만에 있거나 개별적으로 문학활동을 해오는 중이던 89(4명), 88(5명), 87(4명), 86(1명) 총 15명의 학우들은 지난 10월20일~10월30일까지 열린 문학학교를 계기로 진행된 수차례의 모임, M·T를 통해 외대내 문학연합건설, 전문적인 문학운동 수행구심체로써의 「총문학회 건준위」발기를 결의했습니다. 15명의 학우들은 학번별로 팀을 형성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시발로 문학문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문학회 건준위는 방학동안 세미나와 연구작업을 통해 내부역량을 축적하고, 체계를 형성해 90년 학기초에 발족식을 계획중 입니다. 이에 문학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는 학우들의 결집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현제는 창작경험이 있는 학우가 2명밖에 없어, 창작팀을 형성해 집단적으로 창작훈련을 공유하기에 힘 성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문학회 건준위 름:학생회관 2층(총학생회실 옆)
·총문학회 건준위 전제모임:11월18일(토) 오전11시

-총문학회 건설준비위원회-

A·L·A동계특강

AFKN청취반에서는 90년 1월8일부터 2월3일까지 동계특강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통해 참조하십시오. 안내문의는 학생회관 4층 A·L·A방으로 오세요.

-A·L·A-

언론문제연구회

언론문제연구회가 학생회관 4층에 하얗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무하는 말과 글 속에서 한가닥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의대 계학생, 예비역도 무관)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언론문제연구회-

오늘 실내악반 연주회

오늘 외대실내악반에서는 지난해 창단연주회에 이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제2회 정기연주회를 11월14일(화) 오후 5시30분부터 소강당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계단및 학교당국의 대학문화 발전에 대한 무관심과 날로 퇴폐화하는 외대문화계에 순수 아마츄어 모임으로서 외대생앞에 고전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외대 실내악반-

왕산

정기 건강 강연회

·제목:노이로제의 이해와 정신건강의 증진 -性의 정신분석-
·내용: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기획행사로서 「노이로제의 이해와 정신건강의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 특강을 갖고자 합니다.
이날 특강에는 이근후 박사(이화여대 신경정신과 주임교수)의 주제로 현대인의 갈등과 스트레스 및 신경증·일상생활에서의 불안·부적응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응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일시:11월21일(화) 오후 3시~5시
·장소:용인캠퍼스 교양학관 201호
·강사:이근후 박사(이대 의대신경정신과 주임교수)

-학생생활연구소-

경제인의 밤

21세기 외대의 주역 경제학과인이여!
붉은 홍시로 결실을 맺는 가을 교수님들의 사랑, 선배님들의 수확과 후배동학의 힘찬 의욕을 모아 하나된 경제학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일시:11월18일(토) 오후 5시
·장소: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2층

-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아프리카 학술제

·11월15일(수):개막식(오후2시, 학생회관 로비)
원어가요제(오후3시, 2401호)
박희철교수 특별강연
·11월16일(목):슬라이드상영(오후 1시30분, 1412호)
초청강연(오후3시, 2201호)
신승룡과장(선경그룹)
「아프리카의 무역현황」
음초베 목사(탄자니아출신)
서명수(Heat Trace극동사장)
「동아프리카 현황」
·11월17일(금):학술심포지엄(오후2시, 2201호)
「라이베리아의 지배계층 구조분석과 80년 군사구데타의 원인 및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상시행사:풍물전시회(학생회관 전시실), 영화제(오후 1시30분, 1412호)

-동양어문대 아프리카어과-

유고어과 과회장 선거

90년도 유고어과 과회장 선거
·일시:11월15일(수) 오후 3시30분
·장소:학과 세미나실
·후보:김종광, 황진득

-유고어과 선거준비위원회-

등 문 회

이문 광주인성고 동문회
·안건:졸업생환송회준비
·일시:11월15일(수) 오후 5시
·장소:정통
·회비:2만원

대원(남·여)고 동문회
·안건:카니발및 졸업생 환송회
·일시:11월18일(토)오후 5시30분
·장소:종전호텔

충주(남·여)고인의 밤
·일시:11월18일(토) 오후 5시
·장소:겔로바

중동고동문회
·안건:카니발및 졸업생 환송회
·일시:11월18일(토) 오후 5시30분
·장소:리베리아호텔 15층 백제홀
·회비:2만원

왕산 서울고 동문회
·안건:졸업생 환송회
·일시:11월16일(목) 오후 5시
·장소:용인학생회관 식당
·회비:4,000+α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광고신청 : 서울-본사 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 기자실(학생회관 212호)

1990학년도 제1학년 학생모집 요강

1. 모집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	계열	학과명	학과코드 번호	입학정원 전기	후기	계	비고
서양어대학	인문	영어과	01	75	75	150	
		불어과	02	50	50	100	
		독일어과	03	50	50	100	
		노어과	04	25	25	50	
		서반아어과	05	50	50	100	
		이태리어과	06	15	15	30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07	15	15	30	
		화란어과	08	15	15	30	
		스웨덴어과	09	15	15	30	
동양어대학	인문	중국어과	10	50	50	100	
		일본어과	11	50	50	10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2	15	15	30	
		아랍어과	13	25	25	50	
		태국어과	14	15	15	30	
		베트남어과	15	15	15	30	
		인도어과	16	15	15	30	
		터어키어과	17	15	15	30	
		한국어과	18	15	15	30	
정책과학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19	25	25	50	
		행정학과	20	25	25	50	
		신문방송학과	21	25	25	50	
법과대학	인문	법학과	22	75	75	150	
상경대학	인문	무역학과	23	45	45	90	
		경제학과	24	40	40	80	
		경영학과	25	45	45	90	
사범대학	인문	영어교육과	26	15	15	30	
		불어교육과	27	15	15	30	
		독일어교육과	28	15	15	30	
		한국어교육과	29	15	15	30	
* 인문대학	인문	철학과	30	20	20	40	
		언어학과	31	20	20	40	
*서양학대학	인문	영어과	32	20	20	40	
		불어과	33	60	60	120	
		독일어과	34	40	40	80	
		노어과	35	40	40	80	
		서반아어과	36	25	25	50	
		포르투갈어(브라질어)과	37	40	40	80	
		이태리어과	38	25	25	50	
		화란어과	39	25	25	50	
		스웨덴어과	40	20	20	40	
		노르웨이어과	41	20	20	40	
		체코어과	42	20	20	40	
		헝가리어과	43	20	20	40	
		유고어과	44	20	20	40	
* 동양학대학	인문	중국어과	45	25	25	50	
		일본어과	46	20	20	40	
		아랍어과	47	20	20	40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48	20	20	40	
		태국어과	49	20	20	40	
		아프리카어과	50	20	20	40	
		인도어과	51	15	15	30	
* 사회과학대학	인문	무역학과	52	25	25	50	
		경제학과	53	25	25	50	
		경영정보학과	54	20	20	40	
* 자연과학대학	자연	수학과	55	20	20	40	
		물리학과	56	20	20	40	
		화학과	57	20	20	40	
		전자계산학과	58	20	20	40	
		환경학과	59	20	20	40	
		미생물학과	60	20	20	40	
총계		60개학과		1,610	1,610	3,220	

*표가 있는 대학은 위치가 동인임

2. 지원자격

1)고등학교졸업자 및 199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전형방법

1)대학입학 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 및 신체검사로 전형한다.
2)지망학과 수는 제2지망까지로 하며, 제1지망생으로 총점 순위에 따라 입학 정원의 8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1지망 탈락자와 제2지망생에서 선발한다.
3)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

구분	비율	점수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	70%	340점
고등학교내신성적	30%	145.7점
(교과성적)		(131.1점)
(출석성적)		(14.6점)
계	100%	485.7점

4)선택과목의 선정 및 가중치 적용
(1)실업 및 제2외국어에서 1과목 선택
(2)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서양학대학, 동양학대학 각 학과에 지망하여 제2외국어를 선택한 경우 1지망(입학정원의 80%)에 한하여 제2외국어 취득점수의 10%를 가산 전형한다.
5)면접고사는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 활용한다.
6)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각 과목별 낙제 점수제는 없으며, 전 과목 총점 순위에 따라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7)교포 및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특별 전형한다.
8)예, 체능계의 특기자는 특별 전형하지 않는다.

4. 신체검사

1)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신체검사 불응자는 전형에서 제외한다.
3)다음의 신체 결함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전염성 질환, 유전성 질환, 수학에 지장을 주는 내과적 질환을 가진 자
(2)수업, 실험·실습, 실기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수업의 이행 및 수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3)사범대학 지원자는 교사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단 대상자)
(4)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미생물학과 지원자는 색맹·색약 및 실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유의사항

1)본 대학교(인문대학, 서양학대학, 동양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원자 포함)내에서의 복수지원(예:원서 2장 내는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2)제2지망은 본 대학교(인문대학, 서양학대학, 동양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원자 포함)제1지망과 같은 동일 계열내에서 할 수 있다. (인문계와 자연계 교차 지망 금지)
3)전기대학(교)합격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후기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기대학(교) 혹은 후기대학(교)합격자는 추가 모집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4)입학 지원자가 입학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시사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은 입학을 불허 할 수 있다.
5)서류위조자, 시험장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6. 제출서류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석차 연명부(출신학교장이 확인한 용지자 해당 1편)사본 …… 1부
3)사진(3cm×4cm 동일 원판)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탈모 명함판으로 입학원서 소정란에 부착
4)경정고시 출신자는 경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와 체력검사 확인서 원본 및 사본 각1부:경정고시 합격증 및 체력검사 확인서 원본은 예비소집일에 되돌려 줌.

7. 학력고사 시간표 및 고사과목

교시 / 계열 / 시간 / 별고사과목	1 08:40~10:10 (90분)	2 10:40~12:30 (110분)	3 13:30~15:00 (90분)	4 15:30~17:10 (100분)	5 17:20~17:40 (20분)
인문계 고사과목	국어 I(한문 I포함) 국사	수학 I, II-1 사회 I, II 지리 I, II 세계사 택2	영어 공업, 독일어 농업, 프랑스어 상업, 중국어 수산업, 일본어 가사,에스파냐어 택1	국어II 국민윤리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택1	면접
자연계 고사과목	국어 I(한문 I포함) 국사	수학 I, II-2 사회 I 지리 I 세계사 택1	영어 공업, 독일어 농업, 프랑스어 상업, 중국어 수산업, 일본어 가사, 에스파냐어 택1	국민윤리 물리 I, II 화학 I, II 생물 I, II 지구과학 I, II 택2 (물리, 화학중 택1)	면접

*1)수험생은 학력고사 당일 08시 10분까지 해당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08시 10분이 경과하면 학력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2)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미생물학과는 면접과 병행하여 색맹·색약 검사를 실시함.

8. 전형일정

모집구분	내용	일정	장소	비고
전기	1. 원서및모집요강교부	1989.11.17(금)~11.24(금)	서울종무과, 용인종무과	
	2. 원서접수	1989.11.21(화)~11.24(금) 09:00~17:00	서울교무과, 용인교무과	
	3. 예비소집	1989.12.14(목),14:00	서울캠퍼스	
	4. 학력고사및면접	1)학력고사:1989.12.15(금) 08:40~17:10 2)면접:1989.12.15(금) 17:20~17:40	예비소집일에 공고	
	5. 합격자발표	1989.12.28(목),14:00이전	서울캠퍼스	
후기	1. 원서및모집요강교부	1989.12.29(금)~1990.1.6(토)	서울종무과, 용인종무과	*후기모집응시자는 지원서를 다시 제출한다.
	2. 원서접수	1990.1.3(수)~1.6(토)09:00~17:00	서울교무과, 용인교무과	
	3. 예비소집	1990.1.21(일),14:00	서울캠퍼스	
	4. 학력고사및면접	1)학력고사:1990.1.22(월) 08:40~17:10 2)면접:1990.1.22(월) 17:20~17:40	예비소집일에 공고	
	5. 합격자발표	1990.2.3(토), 14:00이전	서울캠퍼스	
추가모집	1. 원서및모집요강교부	1990.2.5(월)~2.10(토)	서울 종무과, 용인서무과	*후기전형결과 모집인원에 미달된 학과에 한 한다. *추가모집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다.
	2. 원서접수	1990.2.8(목)~2.10(토)(09:00~17:00)	서울교무과, 용인교무과	
	3. 예비소집	1990.2.11(일), 14:0	서울캠퍼스	
	4. 학력고사및면접	1)학력고사:1990.2.12(월) 08:40~17:10 2)면접:1990.2.12(월) 17:20~17:40	예비소집일에 공고	
	5. 합격자발표	1990.2.17(토), 14:00이전	서울캠퍼스	

*원서교부 및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함.

9. 기타

1)원서 및 요강대:1,000원
2)전형료:25,000원(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입학원서 하단 해당란에 붙일것)
3)우편접수자는 마감일 17:00까지 본 대학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함.
4)일단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치 않으며 접수 후 원서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5)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접수증 또는 등기증을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으며, 학력고사 및 면접실시 장소를 공고하니 필히 참석하여 고사장을 확인하기 바람.
6)수험생은 고사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함.
7)수험생은 고사 당일 교통이 대단히 혼잡할 것이 예상되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8)입학등록금:별도 유인물 참조
9)신체장애자 입학안내실 설치장소:교무처 교무과
10)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교 교무처에 문의할 것.

부전공및복수전공제도

1. 부전공 제도

1)부전공 개설분야(18개분야)
영어, 불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중국어, 일본어, 정치외교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법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한국어, 철학, 교육학, 전자계산학
2)부전공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학생들이 권장하는 분야이외에 다른 1개 분야를 더 이수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학과 다른 부분의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대응력을 키워기 위한 것이다.

2. 복수전공 제도

이 제도는 부전공을 연장하여 또 하나의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입학 당시의 제1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재학중 이수한 부전공을 연장하여 1년동안 제 2전공의 학점을 보충하면 부전공이 주전공이되어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하는 것으로써 외대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어느 대학보다 잘 정착되어 있다.

장학제도

1. 신입생

*전·후기별로 각각 선발한다.

장학금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왕문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 수석	등록금 4년간(8개학기)면제	단, 매학기 성적 평균2.8이상 이수한 경우만 지급
외문	서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 수석	등록금 2년간(4개학기)면제	〃
왕산	용인캠퍼스 입학생 중 전체 수석	등록금 2년간(4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 I	각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 1년간(2개학기) 면제	〃
우수입학 II	각 학과별 수석	등록금 1학기 면제	

2. 재학생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총장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장학금과 정수장학금 등 외부제공 장학금이 있으며, 학생의 20% 이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음

1)교내 장학금 (89. 2학기 기준)

장학금종류	지급액	장학금종류	지급액
총장장학금	695,000원	동원장학금	695,000원
학장장학금	555,000원	특대장학금	500,000원
성적'수'장학금	390,000원	성적'우'장학금	335,000원
고시장학금	335,000~390,000원	국가보훈장학금	등록금전액

*기타:학과, 근로, 공로장학금
2)외부제공 장학금
(가)공공기관 장학금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장학금, 한국전기통신공사장학금, 한국전력공사장학금
(나)장학재단 장학금
정수장학금, 산학협동재단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 연강학술재단장학금, 양백재단장학금, 아산사회사업재단장학금, 인촌기념회장학금, 세종연구소장학금, 미원문화재단장학금, 문암장학금, 계림장학재단장학금, 금호문화재단장학금, 농동장학회장학금, 금강장학회장학금, 연월문화재단장학금, 신라문화재단장학금, 탄불문화재단장학금, 성옥문화재단장학금, 유한재단장학금, 박정희대통령 및 육영수여사추모사업회장학금, 백산문화재단장학금, 연암문화재단장학금, 장학장학회장학금, 사리원시봉산군장학회장학금, 해춘장학회장학금, 제주장학재단장학금, 계의한국인모국수학생장학금, 수당장학회장학금, 동철문화재단장학금, 일산장학회장학금, 삼선장학문화재단장학금
(다)기타 장학금
동문장학금, 오꾸무라장학금, 재한장학금

입학원서 기재 유의사항

본 대학교 입학 업무는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 처리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입학원서 요령을 잘 읽어 본 다음,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기재 착오로 인한 사항은 본 대학교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아 래

1.입학원서의 기재는 흑색 또는 청색 잉크(볼펜도 무방함)를 사용하여 정자로 쓰고 잘못 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두줄로 지우고 정정한 후 본인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방법(칼, 약품, 종이를 붙임등)으로 정정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2.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는 호적대로 기재한다.
3.제 2지망은 제 1지망과 같은 동일 계열내에서 하여야 한다.
4.코드번호 기록
(1)코드번호는 1칸에 1자씩 기재한다.
(2)학과 코드번호란은 모집 요강 1항을 참조하여 학과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학과명과 학과 코드번호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학과명과 코드번호가 상이할 경우에는 학과 코드번호를 기준하여 처리한다.
5.선택과목은 해당 계열(인문, 자연)란에 기재하며, 입학원서와 수험표의 선택과목란은 숫자에 맞추어 기재하고, 전산카드의 선택과목란은 계열별 해당 선택과목번호에 O표한다.
6.체력 및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출신학교에서 작성한 후 학교장과 작성교사 사인으로 확인날인한 다음 부명(스카치)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韓國外國語大學校

서 울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전화 : 대표 (02) 965-7001

용 인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전화 : 대표 (0335) 33-1700